기술 2026-102 2026.08.13.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IT

크라우드웍스(35539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 성 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우드웍스(355390)

AI 데이터 구축 역량 기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통합 AI 데이터 파운드리 기업

기업정보(2026.08.05 기준)

대표자	김광일
설립일자	2017년 4월 25일
상장일자	2023년 8월 31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주요제품	고품질 데이터, 맞춤형 AI 에이전트 AI 모델 및 AI 에이전트 평가 등

시세정보(2026.08.05 기준)

현재가(원)	1,982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315
발행주식수	15,874,344주
52주 최고가(원)	7,310
52주 최저가(원)	1,435
외국인지분율	2.01%
주요주주	엑스알피1호조합 외 1인, 박민우

■ AI 학습데이터 구축 역량 기반 기업용 AI 솔루션과 피지컬 AI까지 사업영역 확장 중

크라우드웍스(이하, '동사')는 LLM용 데이터, 기업 데이터 파이프라인, AI 에이전트 개발·평가 및 피지컬 AI 데이터로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데이터 구축·판매, 맞춤형 시스템 구축, 구독 및 유지보수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대규모 작업자 기반과 산업별 프로젝트 경험,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을 주요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용 AI 솔루션, 피지컬 AI, 교육, 의료 AI 및 해외사업을 연계하는 구조이다.

■ 전문·멀티모달 데이터 수요 확대에 대응해 AI 학습·평가와 피지컬 AI 영역으로 고도화

목표시장은 모델 개발·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가공·검수부터 성능·안전성·업무 적합성 평가까지 포괄하며, 금융·의료·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은 범용 라벨링에서 전문도메인·멀티모달·합성데이터 및 지속평가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데이터 권리 확보, 전문가 네트워크, 보안환경 대응과 품질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AI 학습데이터 기반 기업용 AI와 피지컬 AI 데이터 파운드리로 확장

동사는 기존 AI 학습데이터 구축 중심 사업에서 기업문서 지식화, AI 에이전트 개발·평가 및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 데이터랩 설립, 로봇 행동 데이터 판매, 정부과제 및 산학협력을 통해 피지컬 AI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 Workstage와 Alpy를 기반으로 데이터 생산부터 구조화·평가·운영까지 연계하고, 기업용 AI 솔루션과 로봇·제조 데이터 사업을 반복매출로 전환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다. 다만 신규사업의 상용화 지연, 정부과제 의존,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 및 추가 지분희석 가능성은 부담요인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239.8	101.6	-17.9	-7.4	-95.7	-39.9	-102.8	-30.6	191.3	-1,008	1,490	N/A	8.7
2024	120.1	-49.9	-117.3	-97.6	-91.7	-76.3	-72.1	-24.2	218.6	-884	963	N/A	7.0
2025	104.8	-12.7	-133.7	-127.5	-217.0	-206.9	-154.8	-59.0	141.7	-1,809	1,265	N/A	2.7

크라우드웍스(355390)

기업경쟁력	
데이터 전주기 통합 수행역량	• AI 데이터의 설계·수집·가공·검수부터 기업문서 지식화와 모델 평가까지 연결해 고객의 AI 개발 전 과정을 지원 가능
대규모 프로젝트 운영기반	• 다수 산업에서 축적한 프로젝트 경험과 대규모 작업자·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도와 물량이 큰 데이터 구축사업에 대응
보안·품질 신뢰성 확보	• 폐쇄망과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응하는 운영기술과 GS·ISO 인증, 데이터 표준화 활동을 통해 금융·국방·공공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군의 진입기반을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AI 데이터 구축·품질관리 기술	• Workstage를 통해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의 작업 설계, 인력 배정, 자동 라벨링 및 다단계 검수를 통합 관리
기업문서 지식화·AI 평가 기술	• Alpy Knowledge Compiler와 Alpy Evaluation을 활용해 비정형 문서를 AI 활용형 데이터로 변환하고 LLM·RAG·AI 에이전트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 기술	• 로봇과 제조설비의 영상·센서·행동 데이터를 수집·가공·관리하여 로봇, 제조, 물류 및 자율주행 모델의 학습에 적용

시장경쟁력	
산업별 전문데이터 대응력	• 금융·의료·제조·통신·자율주행·공공 등 다양한 산업의 업무와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평가 데이터 공급 가능
고성장 데이터 수요와의 사업 정합성	• 시장 수요가 단순 라벨링에서 고난도 추론데이터, 비공개 평가 데이터 및 로봇 행동데이터로 이동하면서 동사의 사업 고도화 방향과 부합
수익모델 확장 가능성	• 프로젝트형 데이터 구축에서 데이터 판매, 솔루션 구독, 유지관리 및 지속평가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 반복매출 기반을 형성할 여지 존재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 대규모 작업자 기반과 Workstage·Alpy·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을 결합해 데이터 구축부터 지식화, 모델 평가 및 로봇 학습 데이터 공급까지 고객의 AI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한다.

희소성(Rarity)

• 국내에서 다수 산업의 데이터 구축 경험, 대규모 작업자 네트워크, 기업용 AI 평가기술 및 피지컬 AI 데이터 역량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방가능성(Imitability)

• 플랫폼은 개발 가능하나, 장기간 축적한 산업별 프로젝트 경험과 품질관리 노하우, 작업자·전문가 네트워크 및 지식재산권을 단기간에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하기는 어렵다.

조직(Organization)

• 개발실, 산업별 영업조직 및 계열회사를 통해 연구개발·데이터 생산·품질관리·사업화를 연계하고 보유 자원을 상용서비스와 고객 프로젝트로 전환할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다.

크라우드웍스(355390)

I. 기업 현황

AI 학습데이터 구축 역량 기반 기업용 AI 솔루션과 피지컬 AI까지 사업영역 확장 중

동사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에서 출발해 LLM용 데이터, 기업 데이터 파이프라인, AI 에이전트 개발·평가 및 피지컬 AI 데이터로 사업을 확장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Workstage와 Alpy 등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데이터 구축·판매, 맞춤형 시스템 구축, 구독 및 유지보수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대규모 작업자 기반과 산업별 프로젝트 경험,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을 주요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용 AI 솔루션, 피지컬 AI, 교육, 의료 AI 및 해외사업을 연계하는 구조로, 금융·제조·국방·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영업과 프로젝트형 수주를 전개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17년 설립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 및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초기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수집·가공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언어모델)용 데이터 구축, 기업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평가 및 피지컬 AI 데이터 공급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핵심 사업모델은 고객의 AI 개발 목적과 데이터 특성에 맞춰 데이터를 설계·수집·가공·검증한 후 프로젝트 대가를 수취하고, 데이터 처리 및 AI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납품하는 구조다. 생성형 AI 영역에서는 데이터 구축·판매와 Workstage 솔루션 공급이 주요 수익원이며, 에이전틱 AI 영역에서는 기업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Alpy 솔루션 납품·구독, 맞춤형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 및 유지보수 매출이 발생한다. 피지컬 AI 영역에서는 로봇·자율주행·제조설비의 학습에 필요한 동작·영상·센서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주요 고객군은 정보기술, 전자, 금융, 통신, 자율주행, 제조, 의료, 교육, 국방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동사는 620개 이상의 고객과 1,2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66만 명 이상의 데이터 작업자와 3억 건 이상의 데이터 구축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작업 배분, 자동 라벨링, 플랫폼 운영 및 AI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작업자 기반과 산업별 데이터 구축경험, 데이터 품질관리 기술 및 기업용 AI 솔루션의 결합이 동사의 주요 경쟁기반이다.

향후 동사는 기존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고난도 추론데이터, 기업 내부 문서의 지식화, AI 모델·에이전트 평가 및 로봇 학습데이터로 고도화하고,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까지 데이터 파운드리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2017.04	법인 설립
2021.12	데이터 라벨링 표준 2건 정보통신단체표준 채택
2022.07	가트너 Hype Cycle for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2022 데이터 가공 대표 기업으로 선정
2023.08	코스닥 시장 상장
2023.10	CB인사이트 'LLMOps Market Map - 데이터 가공' 부문 대표 기업으로 등재
2024.01	2024 Emerging AI+X Top 100 기업 선정
2024.02	'美 가트너 생성형AI 기술을 위한 혁신 가이드' 기술 기업 등재
2024.04	기업 맞춤형 생성형 SLM(소형언어모델) '웍스원(WorksOne)' 정식 런칭
2024.10	가트너 선정 'AI 지식 관리 및 생산성 향상 솔루션' 부문 '이머징 리더' 기업
2025.02	Agentic AI 개발 원스톱 솔루션 'Alpy' 출시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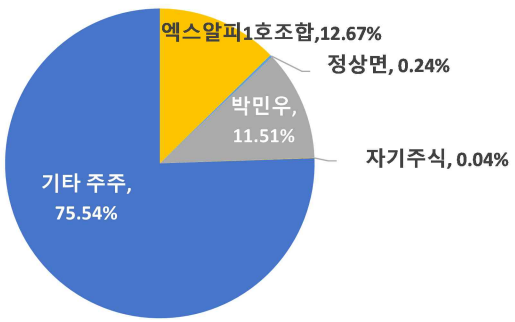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3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엑스알피1호조합으로, 전체 발행보통주(15,577,079주) 중 1,973,903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12.67%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자 정상면이 37,403주(0.24%)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12.91%이다. 한편, 주요주주로 박민우가 확인되며 지분율은 11.51%이다. 동사는 자기주식 6,19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1,767,060주(75.54%)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구조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절대적인 경영권 방어 수준으로 높지는 않다. 종전 최대주주가 11.51%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 주주 간 지분구조와 의사결정 관계가 향후 지배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대주주와 종전 최대주주를 제외한 지분이 다수 일반주주에게 분산되어 있어 주식 유통성과 시장 감시 기능은 높은 편이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서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되는 구조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엑스알피1호조합	1,973,903	12.67%	최대주주
정상면	37,403	0.24%	특수관계인
박민우	1,792,523	11.51%	
자기주식	6,190	0.04%	
기타 주주	11,767,060	75.54%	
합계	15,577,079	100.00%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은 데이터 사업, AI 솔루션 사업, 교육사업과 종속기업을 통한 의료 · 해외 · 신규 플랫폼 사업으로 구분된다. 매출과 사업역량의 중심은 LLM Data와 AI Data를 포함한 데이터 사업이며, 기업용 AI 솔루션은 데이터 구축역량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성장사업에 해당한다.

데이터 사업은 이미지 · 영상 · 텍스트 · 음성 등의 원천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라벨링, 구조화, 검증 및 평가까지의 과정을 제공한다. 기존 AI Data가 컴퓨터 비전과 음성인식 등 일반적인 학습데이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LLM Data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사전학습, 미세조정, 정렬 및 평가에 필요한 추론 · 질의응답 · 전문도메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Workstage는 작업 배분, 진행관리, 품질검수 및 데이터 반출을 통합 관리하며, A1 Data Marketplace는 구축된 데이터를 재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AI 솔루션 사업의 핵심은 기업 맞춤형 AI 에이전트 구축과 기업 데이터의 지식화다. Alpy는 에이전트 설계,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성능평가 및 운영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Alpy Knowledge Compiler는 문서 복잡도 평가, 파싱, 메타데이터 생성, 청킹 및 임베딩을 통해 기업 내부문서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다. 이는 고객이 보유한 비공개 데이터와 업무절차를 모델에 연결하여 실질적인 업무자동화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구축매출 이후 구독 · 유지보수 매출로 확장 가능성을 갖는다.

피지컬 AI 사업은 로봇, 자율주행차, 물류자동화설비 및 제조장비가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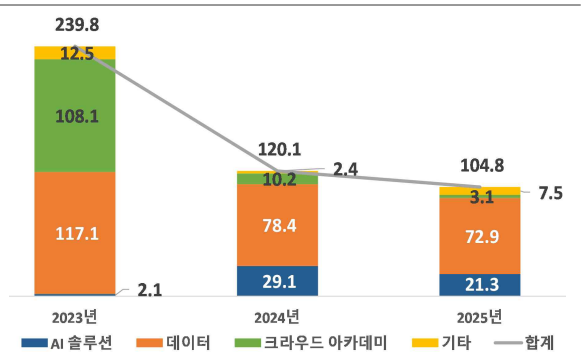
필요한 영상 · 동작 · 센서 · 공간 데이터를 생산한다. Physical AI Data Platform을 통해 외부 관찰시점, 작업자 시점 및 주석이 결합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환경과 시뮬레이션 환경의 데이터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026년 LG전자 컨소시엄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 플랫폼과 공용 데이터레이크 운영을 담당하는 등 데이터 구축역량을 산업현장 데이터로 확장하고 있다.

한편, 계열회사를 통해 데이터 라벨링과 AI 활용, 챗봇 및 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 작업자 공급기반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 AI 데이터 구축과 의료진 보조용 LLM 서비스, 일본시장 대상의 AI 데이터 · 솔루션 사업, 데이터 구축 · 판매 및 마켓플레이스 운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 데이터 서비스와 연령별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며 핵심 AI 데이터 사업의 고객 · 인력 · 지역 범위를 확장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데이터 생산을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 솔루션, AI 에이전트 구축, 데이터 판매 및 교육으로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구조다. 단기적으로 데이터와 기업용 AI 솔루션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피지컬 AI와 의료 · 해외사업은 검증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AI 솔루션	2.1	0.9%	29.1	24.2%	21.3	20.3%
데이터	117.1	48.8%	78.4	65.3%	72.9	69.5%
크라우드 아카데미	108.1	45.1%	10.2	8.5%	3.1	3.0%
기타	12.5	5.2%	2.4	2.0%	7.5	7.2%
매출 합계	239.8	100.0%	120.1	100.0%	104.8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는 금융, 제조 · 피지컬 AI, 공공 등 산업군별 전문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영업조직은 프로덕트팀, AI플랫폼팀 및 데이터플랫폼팀과 협업해 고객 요구사항을 기술적 사양으로 전환한다. 고객의 데이터 환경과 보안규정, AI 도입 목적을 분석한 후 제안서와 개념검증, 본사업 구축으로 이어지는 기술영업 및 프로젝트형 영업의 형태이다. 동사는 클라우드 · 정보기술기업 및 컨설팅회사와 협력하여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MWC와 Japan IT Week 등 국내외 행사에 참여해 솔루션 영업과 일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데이터 종류, 물량, 전문인력 필요 여부, 보안환경, 납기 및 검수난이도에 따라 개별 산정된다. 단순 라벨링은 가격경쟁에 노출될 수 있으나, 전문도메인 데이터, 폐쇄망 구축, 복잡문서 전처리, AI 모델 평가 및 피지컬 AI 데이터는 기술난이도와 고객 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동사는 보안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공략하고, 솔루션과 데이터 구축을 결합해 계약단가와 고객 유지율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한다.

향후 판매전략은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 생산최적화 수요를 대상으로 한 피지컬 AI 사업, 정부 및 공공부문의 소버린 AI · 산업 AI 사업, 금융권에서 검증한 문서처리 · 평가 솔루션의 타 산업 확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영업은 수주 여부와 검수일정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므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와 솔루션 구독 및 유지보수 매출을 확대해 수익구조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시장 동향

전문·멀티모달 데이터 수요 확대에 대응해 AI 학습·평가와 피지컬 AI 영역으로 고도화

목표시장은 모델 개발·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가공·검수부터 성능·안전성·업무 적합성 평가까지 포괄하며, 금융·의료·제조·자율주행·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은 범용 라벨링에서 전문도메인·멀티모달·합성데이터 및 지속평가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데이터 권리 확보, 전문가 네트워크, 보안환경 대응과 품질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사가 Workstage와 Alpy Evaluation을 기반으로 LLM 학습·평가 및 피지컬 AI 데이터 사업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동화와 글로벌 플랫폼의 기능 내재화, 저작권·개인정보 처리비용 확대에 대응해 반복매출형 사업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AI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AI 모델의 개발 · 고도화 ·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 정제 · 가공 · 구조화하고, 모델 및 AI 에이전트의 성능과 안전성,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AI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당 시장은 전통적인 이미지 · 문장 라벨링을 비롯해 LLM의 사전학습 · 미세조정 · 정렬용 데이터, 산업별 전문지식과 추론 데이터, 검색증강생성 및 모델 · 에이전트 평가용 데이터까지 포함한다.

주요 수요자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기업과 클라우드 · 정보기술 기업, 금융 · 제조 등 산업별 기업, 로봇 · 자율주행 기업 및 정부 · 공공기관이다. 모델 개발기업은 대규모 사전학습과 후속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구축을 위탁하고, 일반기업은 내부문서와 업무정보를 정비해 맞춤형 AI 모델과 에이전트에 적용한다. 이후 정확도, 환각, 편향, 보안 및 실제 업무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공개 평가 데이터와 반복적인 성능평가 수요가 발생하며, 학습데이터 구축에서 평가 · 운영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가격은 데이터의 단순 수량보다 수집 난이도와 희소성, 전문지식의 필요성, 저작권 · 개인정보 처리, 보안수준 및 검수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프로젝트형 특성이 강하다. 일반 이미지나 문장의 단순 분류는 자동화와 저비용 사업자 확대로 가격경쟁에 노출되기 쉽지만, 고난도 추론 · 다국어 · 전문도메인 데이터와 비공개 평가 데이터, 실제 로봇 행동 데이터는 구축비용과 품질책임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진입장벽은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보다 합법적인 원천데이터 확보, 대규모 프로젝트 운영경험, 작업자와 전문가 네트워크, 보안환경 대응 및 일관된 품질관리 능력에서 형성된다. 특히 평가 데이터는 모델이 이미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개 벤치마크를 배제하고 고객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비공개 문항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금융 · 공공 · 국방 분야에서는 외부 데이터 반출이 제한되므로 폐쇄망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한 선정기준이다.

관련하여 글로벌 AI 학습 데이터 시장은 2024년 28.2억 달러에서 연평균 27.7%로 성장하여 2029년에는 95.8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AI 학습 데이터 시장은 2024년 1.1억 달러에서 연평균 33.2%의 비율로 2029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에서는 범용 데이터의 대량 확보보다 전문성과 희소성을 갖춘 고품질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금융 · 의료 · 법률 · 제조 등 산업별 용어와 업무절차를 반영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복잡한 추론과정과 경계사례를 포함한 후속학습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텍스트 중심의 데이터가 이미지 · 음성 · 영상 · 공간 및 행동정보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로 확장되고 있다. 생성형 AI 성능 향상을 위한 멀티모달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대화형 AI의 다국어 데이터 수요 및 자율주행용 고품질 라벨 데이터 확대가 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율주행과 로봇은 실제 환경의 다양한 객체와 예외상황을 인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보다 정밀한 수집 · 동기화 · 라벨링 및 검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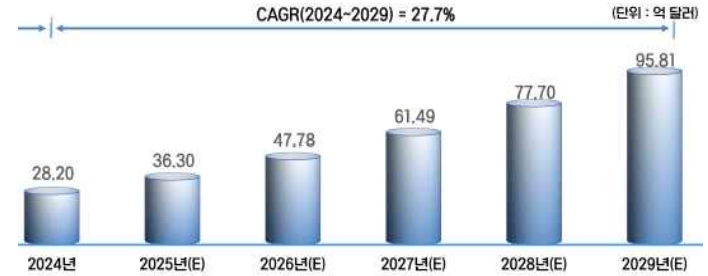
실제 환경에서 수집하기 어렵거나 발생 빈도가 낮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합성데이터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사고 · 고장 · 위험행동과 같은 희귀사건은 현실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데이터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성데이터에 포함된 오류와 편향이 모델 학습에 재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 전문가 검수 및 품질평가가 함께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자동화는 단순 작업비용을 낮추지만, 평가기준 설계와 경계사례 검증 등 고난도 업무에서 사람의 역할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AI 평가가 일회성 모델 성능측정에서 지속적인 검증 ·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모델의 변경, 기업 데이터 갱신 및 업무범위 확대가 발생할 때마다 정확성 · 안전성 · 규정 준수 여부를 재평가해야 하며, AI 에이전트는 최종 답변뿐 아니라 도구 선택, 작업순서, 권한사용 및 실패 대응과정까지 검증해야 한다.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신뢰할 수 있는 AI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테스트 · 평가 · 검증 · 확인(TEVV: Test, Evalu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을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텍스트 · 이미지 · 코드 · 음성 · 영상 등 복수 유형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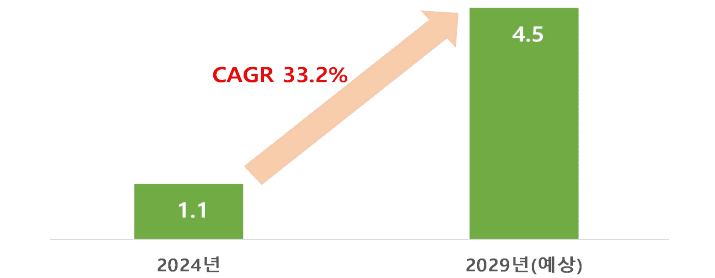
한편, 저작권과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의 양보다 출처와 이용권리, 처리과정의 추적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웹 스크래핑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위험과 의료데이터 접근 제한이 시장의 주요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합법적인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공유환경 구축이 주요 과제이다. 국내에서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험관리와 함께 학습용데이터 개요 등에 대한 설명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이력과 품질관리 문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확대는 동사가 기존 이미지 · 영상 라벨링 중심 사업을 LLM 학습 · 평가 데이터와 피지컬 AI 데이터로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다. 동사는 Workstage와 Alpy Evaluation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축과 검증을 연계하고 있으며, 한국어 · 산업별 전문데이터와 기업 비공개 평가 데이터는 범용 데이터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쟁영역이다. 반면 단순 가공업무는 자동화와 저비용 해외업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기능 내재화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데이터 권리 확보와 전문가 운영비용도 부담요인이다. 이에 따라 전문도메인 · 비공개 평가 · 피지컬 AI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일회성 구축매출을 데이터 판매와 플랫폼 사용료, 지속평가 및 유지관리 매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글로벌 AI 학습 데이터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국내 AI 학습 데이터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데이터 구축·문서 지식화·AI 평가·피지컬 AI를 아우르는 통합 기술체계 확보

동사는 대규모 AI 데이터의 작업 설계·배분·가공·검수·품질관리를 통합하고, 기업문서 지식화와 AI 모델·에이전트 평가까지 연결하는 기술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로봇·제조현장의 행동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피지컬 AI 영역으로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도 컴퓨터 비전과 데이터 가공 자동화에서 생성형 AI, 전문도메인 데이터, 모델 평가 및 피지컬 AI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작업자 배정과 검수, 데이터 워크플로 관리, 영상·자연어 데이터 가공 자동화 및 문서 지식화 기술 중심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라벨링 표준화 및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보안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장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대규모 인력이 참여하는 AI 데이터 생산공정을 플랫폼으로 통제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기업의 생성형 AI · 에이전틱 AI · 피지컬 AI 시스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역량에 기반한다. 핵심은 단순 데이터 라벨링이 아니라 작업 설계, 자동화, 인력 배정, 품질검수, 문서 구조화, 모델 평가 및 운영관리까지 데이터 가치사슬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AI 데이터 구축 · 품질관리 플랫폼 기술은 동사의 대표적인 기반 기술이다. Workstage는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및 포인트클라우드(Point Cloud)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대해 프로젝트 설계, 작업 배분, 라벨링, 검수 및 결과물 관리를 통합 수행한다. AI 모델을 이용한 자동 라벨링과 결과 정확도 평가, 전문 검수자의 다단계 검증을 결합하고, 작업자의 숙련도와 반려 이력, 난이도에 따라 작업 · 검수 인력을 배정할 수 있다. 설치형 제품으로 폐쇄망과 보안 프로젝트에도 대응할 수 있어 데이터 반출이 제한된 수요처에 적용 가능하다.

비정형 문서 구조화 및 지식화 기술은 기업 내부데이터를 검색증강생성(RAG)과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Alpy Knowledge Compiler는 PDF, DOCX, HWP 및 PPT 등 복잡한 문서에 파싱(Parser), 광학문자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청킹(Chunking) 및 메타데이터 생성 절차를 적용해 JSON과 Markdown 등의 AI 활용형 데이터로 변환한다. 문서 복잡도를 정량화해 자동 · 수동 전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산정하고, 파싱 신뢰도를 사전에 측정해 누락된 표 · 이미지 · 문단을 보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마스킹과 문서 요약 등의 선택기능도 지원하여 정확성과 보안 요구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

AI 모델 · RAG · 에이전트 평가 기술은 개발된 AI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제 업무환경에 맞춰 검증하는 기술이다. Alpy Evaluation은 LLM의 응답 품질, RAG의 근거 충실성 및 AI 에이전트의 업무 수행 결과를 정량 · 정성 방식으로 평가하며, 유해성 · 편향 · 보안위험 등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도 지원한다. 범용 평가 데이터셋뿐 아니라 실제 데이터, 합성데이터 및 전문가 검증을 결합해 금융 · 제조 등 고객 산업에 특화된 비공개 평가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공개 벤치마크 점수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업무규칙과 위험요인을 반영해 AI 도입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 · 통합관리 기술은 로봇과 제조설비가 실제 환경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비전-언어-행동(VLA: Vision-Language-Action)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Physical AI Data Platform은 원격조종(Teleoperation),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작업자 시점 및 외부 관찰시점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수 작업자 · 검수자 · 관리자의 역할과 권한을 구분해 가공 · 검증 · 운영과정을 관리한다. 실제 로봇 데이터뿐 아니라 시뮬레이션과 합성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조선 · 제조 · 물류 · 자율주행 등 복잡한 행동과 공정지식을 데이터화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크라우드웍스(355390)

■ 연구개발 역량

동사의 연구개발은 컴퓨터 비전과 데이터 가공 자동화에서 기업용 생성형 AI 및 피지컬 AI로 확장되며, 기업의 AI 도입 전반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이동했다. 초기에는 객체인식, 광학문자인식, 영상 프레임 샘플링 등 데이터 처리기술을 개발했고, 이후 사전학습 모델과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 유사 이미지 검출 및 3차원 객체탐지 기술로 연구범위를 넓혔다. 2022년부터 LLM 연구를 본격화해 문서 전처리, 검색증강생성, 모델 최적화와 AI 에이전트의 구축·평가· 운영 기능을 통합한 Alpy를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LLM용 고난도 추론·전문도메인 데이터 구축과 복잡문서 전처리 자동화로, 법률·수학·교육 및 산업문서를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AI 모델과 에이전트의 성능·신뢰성 평가로, 정답률 중심의 평가를 넘어 안전성, 업무 적합성 및 의사결정 과정까지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추가로 로봇·제조현장의 행동데이터 수집과 데이터레이크 운영으로, 작업자·외부 관찰시점 데이터와 주석 데이터를 통합해 피지컬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제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성과를 국가 단위 모델 개발과 산업현장 데이터 구축에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개발 역량의 강점은 연구과제가 제품 출시와 고객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객체인식·자동 라벨링 연구는 Workstage의 데이터 가공 자동화에, LLM·문서처리 연구는 Knowledge Compiler와 Alpy에, 평가 연구는 Alpy Evaluation에 반영되었다. 최근 금융권 내부문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RAG 구축, AI 에이전트 평가, 조선업 특화 데이터·온톨로지 구축 및 피지컬 AI 월드모델 개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AI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의 운영과 품질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요 권리영역은 작업자·검수자 선별과 평가, 난이도·숙련도 기반 인력 배정, 다중 작업 할당, 반려·재작업 관리 및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 등으로, 대규모 인력이 참여하는 데이터 생산공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용 이미지 추출, 영상 프레임 샘플링, 다중 AI 모델 기반 자동분류와 자연어 질의응답·감정 라벨링 등 데이터 가공 자동화 기술을 국내외에서 권리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서 복잡도 분석과 기업문서 지식화 기술까지 권리 범위를 넓히며, 기존 크라우드소싱 운영기술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생성형 AI 데이터 처리와 기업용 AI 솔루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상표권은 Crowdworks, Workstage, Crowdjobs, Crowd Academy 및 Aidata 등 회사와 기존 서비스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국·일본·영국·유럽 등에 확보되어 있다. Knowledge Compiler가 소프트웨어와 기술서비스 관련 상품류에서 2026년 5월 등록되어 국내 등록상표가 확대되었고, 상표 포트폴리오가 데이터 라벨링·작업자·교육 브랜드에서 기업문서 전처리와 생성형 AI 솔루션 브랜드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AI 학습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GS(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해 Workstage의 기능과 품질을 검증받았으며,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과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기술개발과 조직운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데이터 라벨링 태스크와 결과 데이터 관련 표준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채택시키고, ISO/IEC JTC 1/SC 42의 Global Directory 등록과 국내 AI 데이터 품질관리체계·가이드라인 수립에 참여하는 등 표준화와 품질관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과 표준화 이력은 대기업, 금융·국방·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뒷받침하며, 기술영업과 정부과제 수행에서 신뢰기반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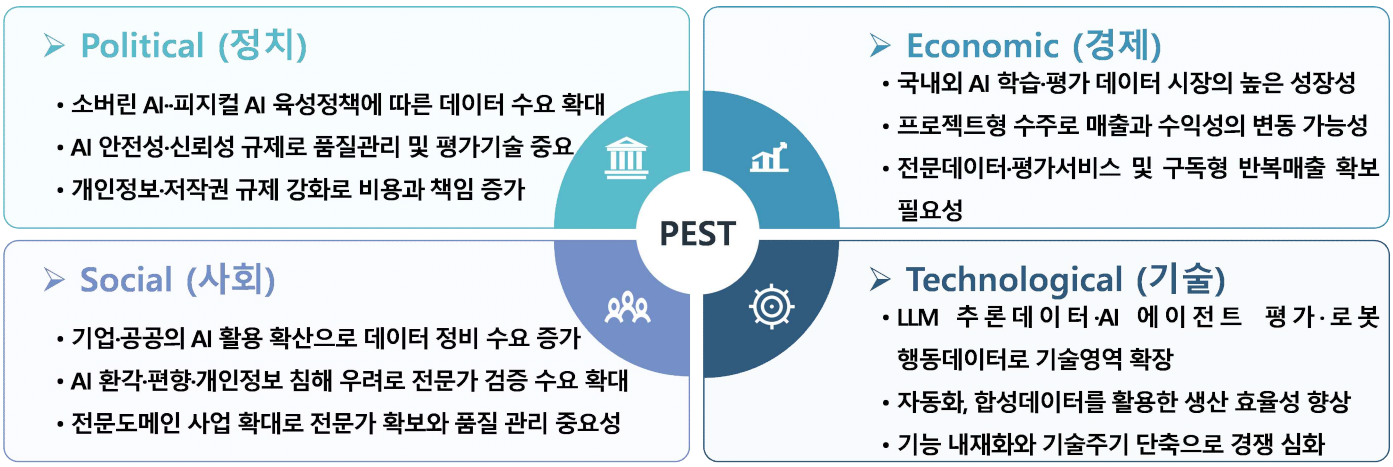
정부의 소버린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및 피지컬 AI 육성정책은 고품질 한국어 · 산업별 학습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수요를 확대하는 기회요인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으로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이 촉진되는 한편, 고영향 AI에 대한 위험관리와 학습데이터 개요, 안전성 · 신뢰성 관련 문서화 요구도 구체화되고 있어 데이터 품질관리와 모델 평가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및 AI 규제 강화는 합법적인 데이터 확보와 처리과정의 검증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확대할 수 있다.

세계와 국내 AI 학습데이터 시장은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과 산업별 모델 개발 확대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어 동사의 중장기 사업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데이터 구축사업은 고객사의 AI 투자시기, 정부과제 발주와 프로젝트 검수 일정에 영향을 받는 수주형 구조로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화 확대와 저비용 해외업체의 진입도 단순 라벨링 단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전문데이터 · 평가서비스와 플랫폼 구독 · 유지보수 등 고부가가치 반복매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산은 내부문서 지식화, 산업별 학습데이터 및 실제 업무기반 평가 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동시에 AI의 환각 · 편향, 개인정보 침해와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가 데이터와 모델 결과를 검수하고 신뢰성을 입증하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동사는 대규모 작업자 기반을 활용할 수 있으나, 사업 중심이 단순 가공에서 법률 · 의료 · 금융 · 제조 등 전문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확보와 작업자 교육, 품질의 일관성 유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AI 기술은 이미지 · 영상 라벨링에서 LLM용 추론데이터, 검색증강생성, AI 에이전트 평가 및 로봇 행동데이터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자동 라벨링과 합성데이터 기술은 데이터 생산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높이지만, 오류와 편향이 학습에 재반영될 위험이 있어 전문가 검수와 평가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높이고 있다. 동사는 Workstage, Alpy Evaluation 및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 생산부터 평가 · 검증까지 대응할 수 있으나, 글로벌 클라우드 · 모델 사업자의 기능 내재화와 기술주기 단축에 대응해 솔루션 성능과 상용화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림 3]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매출 성장 기반 구축과 재무구조 안정화가 본격화

동사의 최근 3개년 영업수익(매출액)은 2023년 239.8억 원, 2024년 120.1억 원, 2025년 104.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AI 산업 환경 변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과정에서 영업적자가 지속되며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2026년 1분기에는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하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도 축소되는 등 실적 개선이 나타났다. 2025년 대규모 유상증자와 2026년 1분기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재무구조는 전년 대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고부가가치 AI 사업 중심의 매출구조 전환

동사의 영업수익(매출액)은 2023년 239.8억 원, 2024년 120.1억 원, 2025년 104.8억 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AI 데이터 구축 시장 환경 변화와 프로젝트 수주 규모의 변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 3개년 영업수익을 살펴보면, AI 솔루션 사업에서는 [Enterprise AI Solution] 매출이 2023년 2.1억 원에서 2024년 10.5억 원, 2025년 15.4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AI 솔루션 사업 확대가 가시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Industrial AI Solution]은 2024년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2025년에는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Consumer AI Solution] 역시 2024년 8.6억 원에서 2025년 5.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Data 사업에서는 [LLM Data] 매출이 2023년 9.4억 원에서 2024년 33.2억 원, 2025년 37.3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데이터 사업 내 비중이 확대된 반면, [AI Data] 매출은 2023년 107.7억 원에서 2024년 45.2억 원, 2025년 35.6억 원으로 지속 감소하였다. 또한 Academy 사업인 [Crowd Academy] 매출은 2023년 108.1억 원 발생 이후, 2024년 10.2억 원, 2025년 3.1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타 부문 매출은 2023년 12.5억 원에서 2024년 2.4억 원, 2025년 7.5억 원으로 변동성을 보였다. 기존 AI Data 및 교육사업 매출구조에서 Enterprise AI Solution과 LLM Data 비중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었다.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28.5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19.0억 원 대비 50.0% 증가하였다. 동사는 AI Data 중심 사업에서 Enterprise AI Solution, LLM Data, AI Evaluation, Agentic AI 솔루션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또한 정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Physical AI 데이터 구축 사업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솔루션 중심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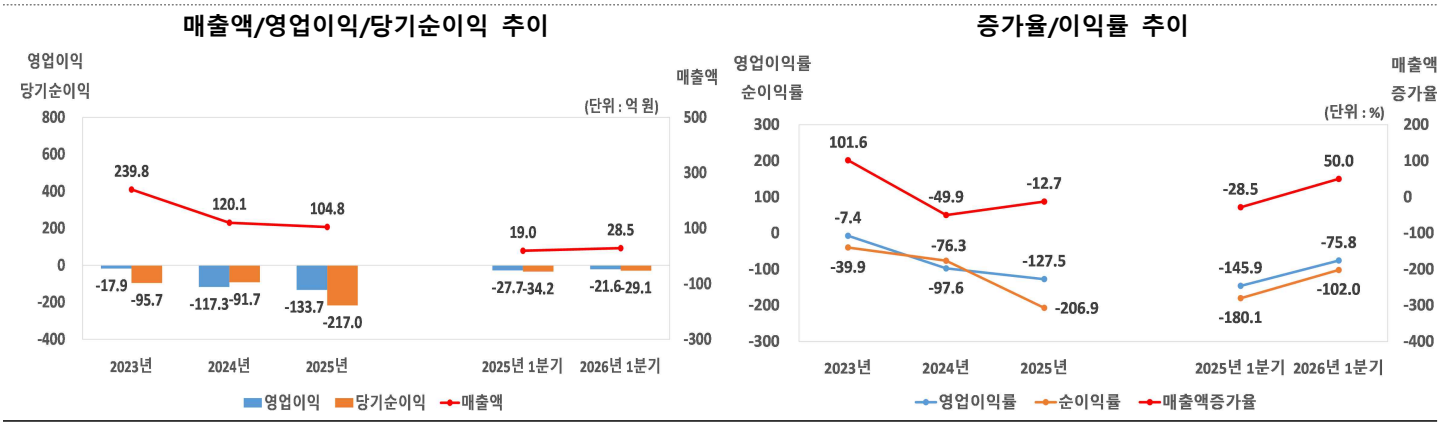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영업손실 축소와 실적 회복 가능성 확대

동사의 3개년 영업손실은 2023년 17.9억 원, 2024년 117.3억 원, 2025년 13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3년간 -7.4%, -97.6%, -127.5% 수준으로 매출 감소와 높은 영업비용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2023년 이후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영업비용은 2025년 238.5억 원으로 영업수익을 크게 상회하였다. 영업비용에서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외주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상연구개발비는 3년간 27.2억 원, 25.0억 원, 20.5억 원으로 지출되었고, 매출액(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11.3%, 20.8%, 19.6% 수준이었다.

당기순손실은 2023년 95.7억 원, 2024년 91.7억 원, 2025년 217.0억 원으로 2025년에 손실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순이익률 역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기타비용 및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손실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금융비용에는 금융자산처분손실, 파생상품 평가손실, 사채 관련 비용 등이 반영되어 순손실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분기에는 영업수익 50% 확대 영향으로 영업손실은 21.6억 원, 당기순손실 29.1억 원으로 손실 규모가 축소되었다. 전반적으로, 동사는 AI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 전환 과정에서 매출 감소와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2026년 1분기에는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향후에는 프로젝트 중심의 일회성 매출뿐 아니라 AI 솔루션 공급, 유지보수, 데이터 판매 등 반복적인 수익원이 확대될 경우 수익성 개선 속도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자본확충을 통한 핵심 재무지표 개선

동사의 3개년 자산총계는 2023년 428.6억 원, 2024년 328.7억 원, 2025년 406.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년간 30.3억 원에서 128.5억 원으로 증가 후, 2025년 73.7억 원으로 감소하였는데, 2025년의 경우 금융자산 취득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등으로 현금성자산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유동비율의 경우 2023년 136.4%, 2024년 94.6%, 2025년 116.9%를 기록하였다. 한편, 2025년 무형자산 규모는 50.5억 원으로 2024년 16.2억 원 대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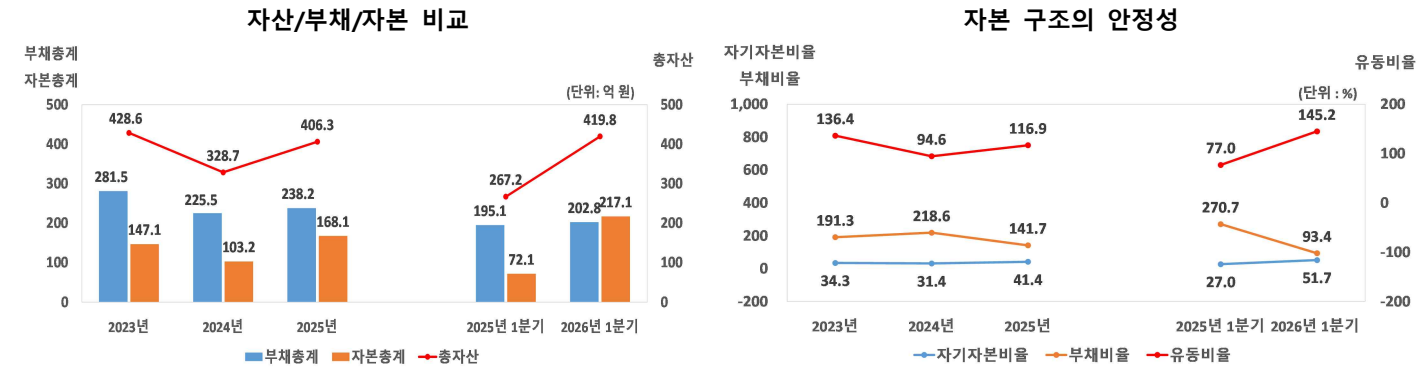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281.5억 원에서 2024년 225.5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에는 238.2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5년 기준 유동부채 내에서는 단기차입금이 140.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도 14.2억 원이 계상되어 단기 상환 부담이 일부 존재하였다. 반면 2025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이 크게 확충되면서 부채 증가폭은 자본 증가폭을 하회하였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4년 218.6%에서 2025년 141.7%로 개선되었다.

자본총계는 2023년 147.1억 원, 2024년 103.2억 원, 2025년 168.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실시되면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액면분할과 신주인수권 행사도 진행되면서 발행주식수는 증가하였고 자기자본도 확대되었다.

크라우드웍스(355390)

2026년 1분기 주요 재무지표를 살펴보면, 유동비율 145.2%, 부채비율 93.4%, 자기자본비율은 51.7%로 나타났고, 추가 유상증자 영향으로 자본이 확충되었다. 종합하면 동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보로 재무구조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성장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정부 AI 프로젝트 및 다년간 수행되는 연구개발 과제 참여 확대가 향후 안정적인 현금창출력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239.8	120.1	104.8	19.0	28.5
매출액증가율(%)	101.6	-49.9	-12.7	-28.5	50.0
영업이익	-17.9	-117.3	-133.7	-27.7	-21.6
영업이익률(%)	-7.4	-97.6	-127.5	-145.9	-75.8
순이익	-95.7	-91.7	-217.0	-34.2	-29.1
순이익률(%)	-39.9	-76.3	-206.9	-180.1	-102.0
부채총계	281.5	225.5	238.2	195.1	202.8
자본총계	147.1	103.2	168.1	72.1	217.1
총자산	428.6	328.7	406.3	267.2	419.8
유동비율(%)	136.4	94.6	116.9	77.0	145.2
부채비율(%)	191.3	218.6	141.7	270.7	93.4
자기자본비율(%)	34.3	31.4	41.4	27.0	51.7
영업현금흐름	-6.7	-102.1	-109.6	-30.4	-24.9
투자현금흐름	-112.4	195.2	-186.9	24.5	-23.5
재무현금흐름	124.8	4.8	241.7	-29.5	49.7
기말현금	30.3	128.5	73.7	93.5	75.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매출은 2025년 10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154.2억 원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과거 외형을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라기보다, 교육사업 축소 이후 데이터와 AI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매출 기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데이터 부문은 2025년 72.9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85.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기존 이미지·영상 데이터 구축에 더해 LLM용 추론·전문도메인 데이터, 모델 평가 데이터 및 피지컬 AI 학습데이터 수요가 매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프로젝트 수주와 검수 일정에 따라 매출 인식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단순 데이터 가공 분야의 가격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은 부담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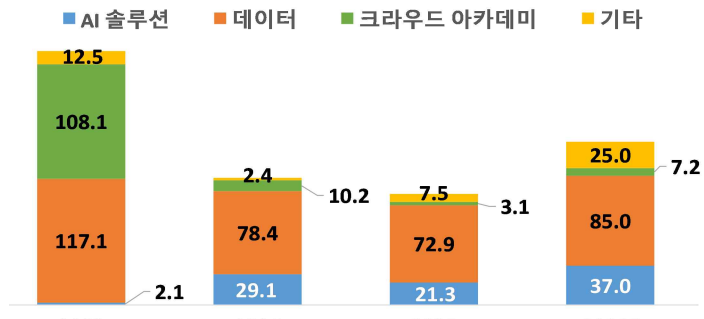
AI 솔루션 부문은 2025년 21.3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37.0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약 24.0%를 차지할 전망이다. Workstage와 Alpy를 활용한 기업문서 지식화, 검색증강생성 시스템, AI 에이전트 구축·평가 및 운영관리 수요가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6년 예상매출이 2024년 실적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AI 솔루션이 데이터 부문을 보완하는 주요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구축형 프로젝트를 구독과 유지보수 매출로 연결할 경우 실적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

크라우드 아카데미 부문은 2025년 3.1억 원으로 크게 축소됐으나, 2026년에는 7.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활용과 기업 맞춤형 교육 수요가 일부 회복을 이끌 수 있으나, 제한적인 매출 규모로 과거와 같은 핵심 매출원보다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 고객 접점 확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기타 부문은 2025년 7.5억 원에서 2026년 25.0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약 1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AI, 해외사업, 데이터 판매 및 신규 플랫폼 사업 등의 매출 기여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 사업별 예상매출과 수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전망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기타 부문의 목표 달성 여부가 2026년 전체 외형 회복 폭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2026년 실적은 데이터 부문의 완만한 회복과 AI 솔루션의 고성장, 기타 신규사업의 매출 확대가 함께 나타나는 구조가 예상된다. 매출 구성도 2023년 교육사업 비중이 높았던 구조에서 데이터와 기업용 AI 솔루션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외형 성장을 위해서는 대형 데이터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수주와 AI 솔루션의 상용화, 신규사업의 계획된 매출 인식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일회성 구축사업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솔루션 구독·유지보수, 데이터 판매 및 지속평가 서비스와 같은 반복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실적 회복의 지속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E*
AI 솔루션	2.1	29.1	21.3	37.0
데이터	117.1	78.4	72.9	85.0
크라우드 아카데미	108.1	10.2	3.1	7.2
기타	12.5	2.4	7.5	25.0
합계	239.8	120.1	104.8	154.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서울평가정보(주) 자체 전망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AI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용 AI와 피지컬 AI 데이터 파운드리로 확장 중

동사는 기존 AI 학습데이터 구축 중심 사업에서 기업문서 지식화, AI 에이전트 개발·평가 및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 데이터랩 설립, 로봇 행동 데이터 판매, 정부과제 및 산학협력을 통해 피지컬 AI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 Workstage와 Alpy를 기반으로 데이터 생산부터 구조화·평가·운영까지 연계하고, 기업용 AI 솔루션과 로봇·제조 데이터 사업을 반복매출로 전환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다. 다만 신규사업의 상용화 지연, 정부과제 의존,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 및 추가 지분희석 가능성은 부담요인으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2025년 데이터와 AI를 양대 영역으로 재정비하고, 자체 솔루션 Alpy를 활용한 AI 에이전트 개발과 모델 · 에이전트 평가를 독립적인 사업으로 구체화함에 따라 사업의 중심도 소형언어모델 WorksOne 공급에서 기업문서 전처리, 검색증강생성, 에이전트 구축 · 평가 및 운영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형 기업 AI 솔루션으로 이동하였다. 2026년에는 피지컬 AI가 별도의 플랫폼과 조직, 데이터 상품을 갖춘 핵심 성장영역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동사는 AI 명령과 로봇의 실제 행동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수집 · 관리하는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로봇 · 자율주행 · 제조 분야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연구 · 실증하는 피지컬 AI 데이터랩을 신설하였다. 이는 기존 이미지 · 영상 라벨링 기술을 로봇의 관절 궤적, 제어신호, 작업자 시점 영상 및 행동 결과를 함께 처리하는 데이터 인프라로 확장한 변화다.

동사는 A1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글로벌 작업자가 로봇팔을 원격 조작해 생산한 정밀조작 데이터셋을 공급하여 피지컬 AI 데이터를 상품화하였고, 해당 데이터는 LeRobot 형식과 작업 완성도 · 속도 · 경로 효율 · 안전성에 관한 품질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피지컬 AI 사업이 국책과제와 맞춤형 구축 프로젝트에 머무르지 않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형 사업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기반은 정부과제와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피지컬 AI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각 · 행동 데이터가 결합된 멀티모달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공용 데이터레이크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동사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및 피지컬 AI를 연결하는 데이터 파운드리를 중장기 사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데이터 수집 · 가공기업에서 산업별 AI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경영진과 이사회가 재편되었고, 2025년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이어 2026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사업 추진기반을 보완하였다.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수반하므로 신임 경영진이 피지컬 AI와 기업용 AI 솔루션 중심의 전략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조달자금과 신규사업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제시하는지가 지배구조 안정성 면에서 중요하다.

■ 향후 전망

동사의 성장방향은 생성형 AI용 학습데이터, 기업용 에이전틱 AI 및 피지컬 AI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 파운드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Workstage를 활용한 데이터 생산 · 품질관리, Alpy Knowledge Compiler를 통한 기업문서 지식화, Alpy Evaluation 기반 모델 · 에이전트 검증과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할 경우 고객사의 AI 개발부터 운영까지 데이터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문서처리, 산업별

크라우드웍스(355390)

전문데이터, 폐쇄망 운영 및 인간 전문가 기반 평가영역은 글로벌 범용 플랫폼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피지컬 AI 사업은 정부과제 참여와 플랫폼 개발, 데이터랩 설립, 실제 데이터셋 판매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로봇 동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명령 · 행동 · 결과를 함께 데이터화하는 기술은 제조, 조선, 물류 및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표준 형식으로 정리된 데이터셋을 A1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방식은 맞춤형 프로젝트 외에 반복적인 데이터 판매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피지컬 AI 데이터는 로봇 종류와 작업환경에 따라 형식이 달라 지속적인 수집 · 정제와 표준화가 필요하고, 특정 장비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다른 로봇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과제와 실증사업을 실제 제조기업 및 로봇 개발사의 유료계약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기종과 작업 시나리오를 확보해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의 확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사업은 피지컬 AI 사업의 인력기반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교육 시장에 진입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능력과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 확산 역량을 결합하면 최고경영자, 실무자 및 데이터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층적인 교육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업무협약 자체가 직접적인 사업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공동 교육과정을 정규 프로그램과 자격체계로 정착시키고 기업의 채용 · 프로젝트 수요와 연결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용 AI 솔루션에서는 내부문서의 전처리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AI 에이전트 평가 및 운영관리가 주요 사업기회가 될 전망이다. 기업의 AI 도입이 시범형 챗봇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확대될수록 비정형 문서 구조화와 온톨로지 구축, 폐쇄망 운영 및 지속적인 성능평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동사는 데이터 구축과 AI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나, 글로벌 클라우드 · 모델 기업이 유사 기능을 자체 서비스에 통합하고 있어 산업별 데이터 이해도와 보안 대응, 평가 전문성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신규사업 확대 과정에서 조직과 투자자원의 분산, 정부과제 의존, 기술 상용화 지연 및 추가적인 자본조달 가능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피지컬 AI, 교육, 의료 AI 및 해외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개발 · 영업 역량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문서 지식화, AI 평가 및 제조 · 로봇 데이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수행성과를 데이터 판매, 플랫폼 구독, 유지관리 및 지속평가 서비스로 연결하는지가 사업구조 안정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크라우드웍스(35539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8.05)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크라우드웍스	O	X	X

*** 2026년 6월 29일~7월 1일 소수계좌 거래집중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